

최고 무대서 LPGA 첫승 ‘박성현 시대’ 활짝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 정상

상금 가장 큰 대회 10억 3000만원 ‘잭팟’
메이저대회서 LPGA투어 첫승 기쁨 두배
“집중할 수 있게 조언해 준 캐디에게 감사”

‘슈퍼루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기어코 일을 냈다.

박성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2017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는 꽤거리를 이룩했다. 박성현은 대회 최종일인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1~4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친 박성현은 대망의 US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US여자오픈은 미 LPGA투어에서 가장 큰 상금이 걸린 대회다. 우승자에게는 91만 달러(약 10억 3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끝나 박성현은 첫 번째 LPGA 투어 우승을 메이저대회로 했고 우승상금도 만만치 않아 기쁨이 3배였다.

3라운드까지 단독 4위에 올라있었던 박성현은 전반 9개 홀에서 3개의 버디를 기록하는 등 페이스가 좋았다. 이 기세는 후반 레이스에서도 이어졌다.

12번 홀(파4)에서의 버디로 공동선두로 순위를 끌어올린 뒤 15번 홀(파5)에서 7.5미터 페트로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올랐다. 이어 17번 홀(파4)에서 다시 한 번 버디를 기록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박성현은 ‘될성부른 나무’였다. 지난해 비회원신분으로 LPGA무대에 도전했다. 우승은 없었지만 예비챔피언십 준우승, US여자오픈 3위 등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두면서 상금랭킹 20위 안에 들어 당당히 LPGA투어 진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연도	우승자	우승스코어
1998	박세리	6오버파 290타★
2005	김주연	3오버파 283타
2008	비안비	9언더파 283타
2009	지은희	이븐파 284타
2011	유소연	3언더파 281타★
2012	최나연	7언더파 281타
2013	비안비	8언더파 280타
2015	전인지	8언더파 272타
2017	박성현	11언더파 277타

*★는 연장우승

출권을 획득했다. LPGA회원으로서의 데뷔전이었던 2017 HSBC워민스챔피언십에서 3위, 볼빅챔피언십에서 공동2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다. 박성현은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 석권을 통해 LPGA 첫 우승을 경험하면서 강자로 급부상했다.

우승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성현은 “18홀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한 순간에 플레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17번 홀 이전까지는 연장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버디를 하고 나서 우승을 예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캐디의 역할이 컸다. 경기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대회를 함께한 데이비드 존스 캐디에 대한 고마움도 빼놓지 않았다.

박성현은 “올해 목표가 시즌 1승을 거두는 것과 신인상이었다. 일단 1승을 달성했다. 다음 우승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US여자오픈에서 LPGA 마수걸이 우승을 신고하며 화려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린 박성현의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럼프 토너먼트 외국인선수들이 지배했다”

미국언론이 본 US여자오픈

제72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가 박성현(24·KEB하나은행)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바쁜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2~4라운드를 직접 관전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US오픈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

전한 것은 1918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3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성현이 17일 최종라운드 15번홀(파5)에서 장거리 버디버트에 성공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 박성현이 역전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버디 페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성현의 우승을 축하하면서도 대회 내내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닌 한국 아마추어 선수 최혜진에 활약에 “매우 인상적인 선수였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US여자오픈 대회장 방문을 놓고 일부 미국 언론들은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

를 올렸다. 특히 ‘USA투데이’는 ‘미국 골프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큰 제목 아래 ‘트럼프 토너먼트를 외국인선수들이 지배했다’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미국 골프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당시 활용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를 인용해 만든 것이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회 리더보드는 악몽이었을 것이다. 리더보드 상위 14명 가운데 11명이 외국인선수였다’며 살짝 고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왔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미

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파격적인 행보로 유럽 정상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에서 진행된 US오픈에서 외국선수들이 리더보드 상단에 대거 위치한 것을 보는 게 불편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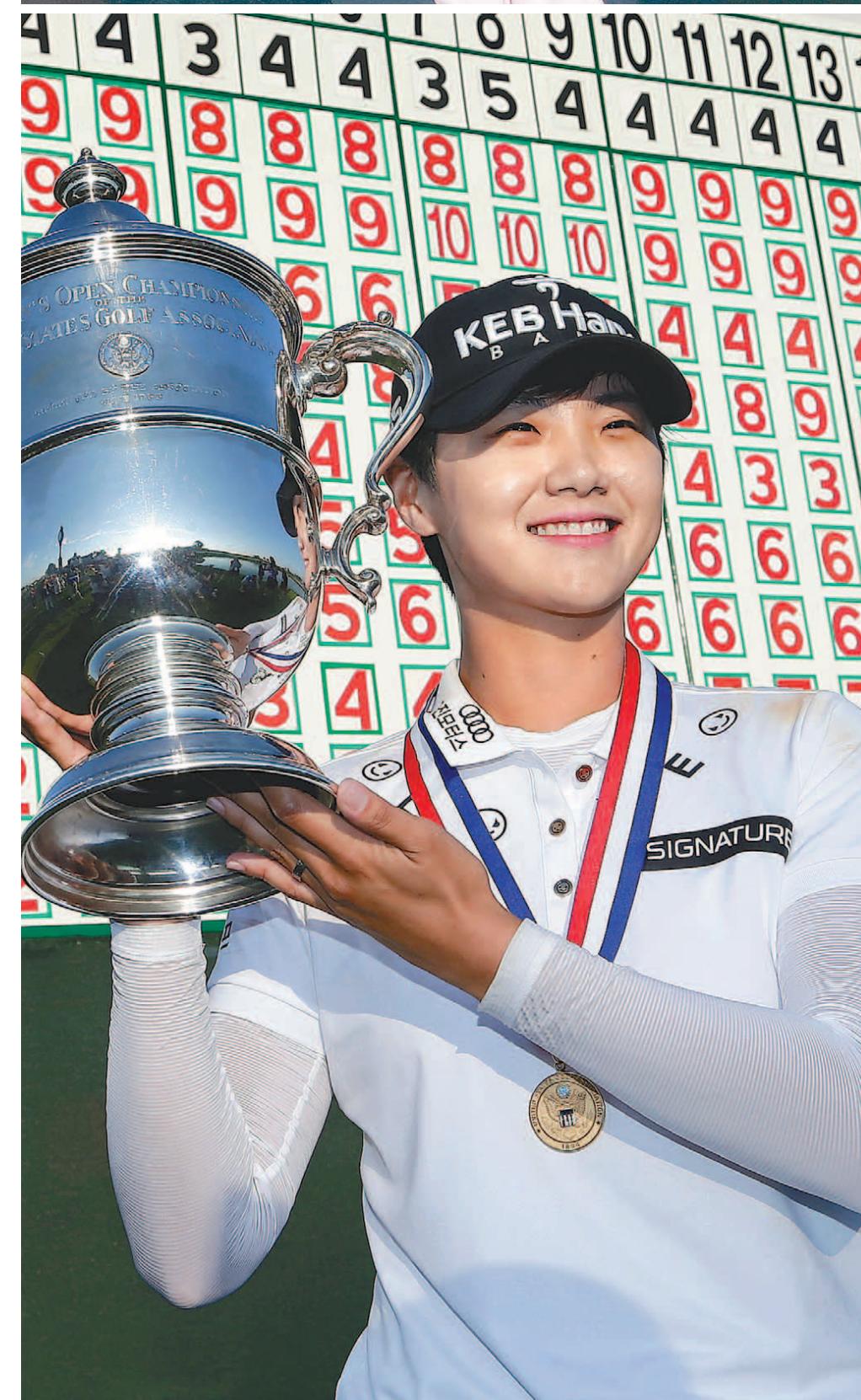
는 지적이다.

미국 우선주의 대표주자 트럼프 대통령이 US

여자오픈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미

국인들도 궁금해 하는 눈치다.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박성현이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제72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스코어보드 앞에서 우승프로필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아래 사진). 이날 골프장을 방문해 경기를 지켜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승만큼 빛난 준우승이라는 진부한 표현을 다시 한 번 써야 할 듯하다. 17일(한국시간) 박성현의 우승으로 끝난 제72회 US여자오픈은 최혜진(학산여고)이라는 또 하나의 스타를 탄생시켰다. 베드민스터(미 뉴저지주) | AP뉴시스

트럼프도 깜짝 놀란 아마 최혜진의 반란

50년만에 아마선수 우승신화 쓸 뻔

여고생 골퍼 최혜진(18·학산여고)이 US여자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US 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97타를 친 박성현(24·KEB하나은행)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18세의 여고생 아마추어 골퍼 최혜진은 메이저대회에서도 프로들과 견줘도 손색없는 기량을 발휘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3리운드까지 선두 평산(28·중국)에게 2타 뒤진 공동2위를 기록한 최혜진은 한때 역전 우승의 기대감까지 들게 했다. 거리와 샷이 정확도는 동반자 평산을 압도했다.

4라운드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간 최혜진은 15번홀까지 순항하다 16번홀(파3)에서 흔들렸다. 티샷이 해저드에 빠져 벌티를 받았고 결국 더블보기로 홀을 마쳤다. 이 샷 하나로 우승의 꿈이 멀어지고 말았다.

US오픈 역사상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한 것은 1967년 캐서린 라코스테(프랑스)가 유일하다. 최혜진은 50년 만에 아마추어 선수 우승을 노렸지만, 대기록 달성을에는 실패했다. 비록 우승의 영광은 아쉽게 놓쳤지만, 최혜진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세계최고권위의 메이저 대회에서 선전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회 참가자처럼 영광이 있는데 준우승을 해서 기쁘다.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며 웃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현장을 찾았는데 경기 도중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US여자오픈 현장에 와 있다. 이미추어선수(최혜진)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몇 십 만의 일이다. 매우 흥미롭다”며 최혜진의 선전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US오픈의 준우승 상금을 54만 달러(약 6억원)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상금이 걸린 골프대회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은 상금 받을 권리가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혜진은 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준우승 상금은 공동 3위를 차지한 유소연(27·메디힐)과 하미정(28·대방건설)이 나눠 갖는다.

정지욱 기자

박세리와 세리키즈, 10년간 7번 여왕 탄생

한국선수들과 인연많은 US여자오픈

최혜진 2위·유소연 허미정 공동 3위 등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남자 8명이나 ‘톱10’

US여자오픈은 한국선수들과 인연이 많은 대회다. 7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회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이 리더보드 상단을 점령했다. 17일 대회 마지막 날까지 이 페이스는 유지됐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대회 정상에 올랐고, 아마추어로 참가한 국가

대표 최혜진(18·학산여고)이 2위를 차지했다. 그 뿐이 아니다. 세계 랭킹 1위 유소연(27)과 허미정(28)이 공동 3위를 했다. 이정은(621)이 공동 5위, 김세영(24), 양희영(28), 전인지(23)가 공동 8위에 랭크되는 등 선전이 이어졌다.

‘US여자오픈이 아니라 한국여자오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 이유가 있다.

●박세리에서 시작된 US여자오픈 태극남자 점령

‘박세리 키즈’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그의 미국 진출은 한국골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박세리를 보면서 자란 유소년 골퍼들이 성장해 현재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있다. 박세리는 1998년 US오픈에서 명장면을 연출했다. 태국의 추아시리폰과 연장전에 돌입한 박세리는 18번홀에서 티샷한 골이 워터해저드 근처에 떨어졌다. 정상적으로는 스텐스가 나오지 않는 위치에 공이 있었다. 박세리는 고민 끝에 골프화와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 샷을 했고, 결국 우승컵까지 거머쥐었다. 이 장면은 ‘박세리 키즈’ 탄생에 원동력이 됐고, 애국가의 한 장면에 포함돼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

●10년간 7번이나 우승한 태극남자들

이른바 ‘박세리 키즈’가 본격적으로 LPGA 무대에 등장한 이후 태극남자들의 US여자오픈 우승 소식이 줄을 이었다. 2008년 박인비, 2009년

승 랭킹은 2005년 김주연으로부터 본격 시작됐다. 김주연은 모건 프레슬(미국)과 접전 끝에 우승했다. 김주연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그림 같은 병기 샷으로 공을 홀컵에 넣으며 버디를 낚아 우승을 확정지었다. 김주연의 LPGA 투어 첫 번째 우승이자 마지막 우승으로 남았다. 우승을 결정짓는 그 병기 샷은 US여자오픈 역사에 남은 장면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김주연은 이후 이름도 버디 김으로 바꿨다.

●10년간 7번이나 우승한 태극남자들

이른바 ‘박세리 키즈’가 본격적으로 LPGA 무대에 등장한 이후 태극남자들의 US여자오픈 우승 소식이 줄을 이었다. 2008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가 차례로 순금 메달과 함께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박인비는 만 19세 11개월 17일로 1998년 박세리의 20세 9개월 8일을 넘어선 최연소 우승 신기록도 세웠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연속 한국선수들이 대회 정상에 섰다. 유소연은 2011년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했고, 서희경과 연장전을 치른 끝에 정상에 섰다. 박인비는 한국선수 중 유일하게 개인 통산 2번의 우승을 달성했다. 2015년에는 LPGA 비회원이었던 전인芝가 우승하며 2016년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결정했다. 올해 대회에서 박성현이 우승컵을 또 가져가며 우리 선수들과 US 여자오픈과의 강한 인연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최용석 기자

페더러, 무릎수술 딛고 8번째 월드컵 우승

남자단식 결승전서 마린 칠리치에 3-0
보리 이후 41년만에 무실세트 정상 꾸며

로저 페더러(36·스위스)가 1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올링글랜드클럽에서 열린 2017 월드

고 월드컵 남자단식 최다 우승자가 됐다.

1시간41분만에 결승전을 끝냈다. 페더라는 지난해 2월 원 무릎에 칼을 뗐다. 테니스 인생 첫 수술이었다. 일각에서는 은퇴설까지 제기했다. 페더라는 수술 여파로 고대하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은 물론 그해 후반기 경기 를 모두 날렸다.

그리고 올해 완벽하게 부활했다. 시즌 첫 메

페더러는 우승 직후, 감정이 북받친 듯 시상식에 앞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칠리치는 페더러의 벽에 막혀 준우승에 그쳤다. 2세트 한때 눈물까지 흘리는 극심한 통증으로 1911년 이후 첫 결승전 기권자가 되는 듯 했지만 끝까지 라켓을 놓지 않는 투혼으로 멋진 조연이 됐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